

보물상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성탄 구경국
사진 속 성탄 이야기 김유정 · 김경상
마음을 담아 포장하기 이해경



매년 이맘때, 코끝이 아리고 손발이 푹푹 어는 추위에도 우리는 '성탄 맞이' 준비로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달의 보물상자에는 성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성탄을 더욱 풍성히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로 채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성탄'에서는 행복한 성탄이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성탄 메시지를 전하며 '사진 속 성탄 이야기'에서는 사진을 통해 성탄을 맞는 우리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게 이끕니다. '마음을 담아 포장하기'에서는 성탄 선물을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이접기 포장법을 소개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성탄

-성탄 메시지-

구 경 국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과 함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에 선물을 하거나 카드라도 보낼 사람을 꼽아보다, 문득 신학생 시절 인스브루크에서 공부할 때 누군가가 보여준 캐리커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림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양손 가득히 선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에 흥겨운 표정인데, 요셉은 배가 잔뜩 부른 마리아가 앉은 당나귀의 고삐를 꼭 쥐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기는커녕 시선 한번 주지 않습니다.

한해를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이나 축일처럼 정확히 기억해야 할 날이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같이 알뜰한 상혼(商魂)에 놀아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도 이와 같이 수많은 날들 중의 하나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그리고 앞에서 열거한 날들처럼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탄과 성모 마리아

‘성탄’ 하면, 성모 마리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 38)라고 고백한 성모 마리아의 순명이 없었다면 말씀

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우리가 오늘날 성탄을 기념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탄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는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이 사건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 14)라고 짧고도 명쾌하게 표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리라 하는 복된 소식인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구원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려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데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하였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데만 그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되새기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기회를 찾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야말로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구유 그리고 나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화를 모아 놓은 화려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이지만, 진정한 성탄의 신비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그곳에 머무는 가장 비천한 이들과 함께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을 되새기고,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소비자상주의’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눔이 아니라 자기 과시입니다. 더구나 경쟁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만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기에, 나눔이란 자신을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풍조가 비단 믿음이 없는 바깥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까지 널리 확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고, 그로써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누다는 것은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 에게서 벗어나 하느님에게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에게로 마음을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귀중하지만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역시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는 '애덕의 실천' 을 말합니다.

올 성탄은 평소에 나보다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나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항상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탄

실례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럴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밤을 지새우면서 즐겁게 지낼 성탄 파티입니까?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때, 나 혼자만 동떨어져 이 모든 즐거움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성탄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한다면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로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성탄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보다 못한 이웃에게도 따스한 손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낀다면 모두가 행복한 성탄이 될 것입니다. 🎄